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추석 연휴에 플라톤의 '국가' (Republic)를 읽었다. 주로 이차 자료를 통하든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접하다가, 이참에 통독에 나섰다. 대학원 시절 수강한 정치철학 강의에서 멋진 인품의 교수가 자신은 매년 꼭 한 번은 '국가'를 읽는다면 말이 문득 생각나기도 했지만, 시절이 수상한가, '기본'을 찬찬히 되새겨 보자는 심리가 막연히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플라톤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스승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민주주의가 죽음으로 내몰고, 정치에 대한 그의 환멸이 가장 고조됐던 무렵에, 그가 가장 정치적인 책을 썼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국가'는 도덕 혹은 정의의 의미와 그것이 구현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집요하게 탐구한 책이다. 대부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두 형제-글라우콘과 아데이만투스-간 대화로 채워진 책에는 도덕과 행복, 선한 삶 등에 관한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개념과 인명들이 넘친다. 그러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씌어둔 동원하는 사례와 비유들에도, 좀 난해하

플라톤을 읽으며

다 싶으면 거의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질문들과, 뒤이은 소크라테스의 겸손하고 세밀한 부연으로 인해 많은 점에서 논쟁적인 책이지만, 나같이 아둔한 독자도 흐름의 줄기를 좇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시장의 융성과 도덕의 쇠락

플라톤이 꿈꾼 사회는 철인왕이 다스리는 공동체다. 도덕의 기본은 각자가 주어진 직분과 기능에 충실한 데서 출발하되('전분성의 원칙'), 대중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주된 책임은 도덕과 선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자 왕에게 주어진다. 가령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는 동굴에 갇혀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현실로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보통 사람들과, 과감히 비탈세상으로 나와 태양이 비추는 만물의 실상(reality)을 경험하는 철인왕이 대비되어 있거니와, 가족·재산 등 사적 삶을 포기한 채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철인왕은 다시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 미망을 벗어날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도시 국가라면 철인왕 통치를 꿈꿀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철인왕을 키우고 찾는 일, 대중을 계몽하고 훈련하는 문제에 이르면, 우리 현실은 플라톤이 그린 세상을 암울한 시절이 낳은 낭만적 상상-가령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류(類)의-혹은 거기 비추어 현실을 재는 이념형(ideal type) 정도로 보이게 만든다.

무엇보다 사적 이기심을 공적 선을 위한 제1의 모티브로 긍정하는 시장 체제에 선, 대중들에게 새삼스레 도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난센스이기 쉽다. 얼마 전 작고한 평론가 황현산의 말대로 '가장 진실한 말이 가장 허망한 말'이 될 수 있거니와, 맨더빌 이래 자유주의 경제 사상이 그 수많은 변형들에도 불구하고 자애적(自愛的) 개인의 시장적 자유를 금과옥조로 감싸 안는 한, 시장의 융성이 도덕의 쇠락을 동반한다는 역설은 능히 예견할 만하다.

플라톤에게도 당대의 대중은 이미 욕망의 과잉에 끌려다니며 마음의 평정과 조화를 잃은 불안정한 존재였다. 그런데 자유주의의 공격적 표출인 신자유주의가 길들이고 거기에 편승해 온 '지구적' 대동진 데다, 좌우의 포퓰리즘마저 극성을 부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도덕과 이타적 배려에 입각한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이란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욕망이 들끓는 우리의 자화상

개체적 소비자가 부상할수록 공동체적 시민은 추락하기 마련이다. 이방 쪽 속내에 종살이하며 산지사방(散之四方)으로 쫓겨 다니던 때가 엇그제인데, 비교마저 민망한 한국의 난민 수용 실태 앞에서 상투적이고 구차한 변명으로 난민 반대를 선동하고, 장애인 실업률이나 들어서려면 저마다 머리띠를 두르고 필사적인 '항전'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의 토론방에는 가격 담합과 임대 비율 축소를 위해 동지자는 욕망들이 날것 그대로 들끓는다. 약자에 대한 멸시와 감자예의 동경이 일상화되면서, 우리의 식은 자연스럽게 가해자 문화에 동화된다. 재벌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내 자식만은 대기업의 일원이 되길 불철주야 선망하며, 불로 소득자를 향한 도덕적 질타는 일확천금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욕망들과 한 통속으로 얽힌다.

심지어 율리케 계몽을 선도해야 할 종교개혁자 몰질척 이기(利己)를 앞장서 부추긴다. 잇을 만하면 터지는 종교인들의 추문은 그렇다 쳐도, 웬만한 유명 사찰은 사천왕문을 나서면 바로 불심을 돈으로 흥청하고, 대형 교회 세습은 교회가 얼마나 불신주의의 오만에 포획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조지 오웰은 지옥을 암(籠)보다 더 무서워하는 기독교인을 만나 보지 못했다며 비아냥냈지만, 오늘날 돈의 힘은 내세(來世)에 대한 두려움마저 일거에 제압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러하여 '핏뀌므로 물든 이빨과 발톱들'(A.테니스)이 뒤엎겨 싸우는 이 욕망의 아수라에서, 영악한 계산을 성공적 생존 방식이라 뽐내며 오늘도 인간성의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우리는, 구조에 치이고 삶에 지친 무고한 희생자, 합리적 행위자일 뿐인가. 그런데 왜 그 인품 좋은 교수는, 수양서도 종교적 진리도 아니며 현실 적합성도 없는, 플라톤을 오늘날도 읽는 것인가.

NGO칼럼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 병 채
(사)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

행한 '어르신 어울림 축제마당' 큰잔치로 치르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본다. 광주시의 19만 노인 인구 30%가 넘는 6만여 경로당 회원들의 일상엔 1300여 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시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위해 프로그램 보급 확대와 공동작업장 등 일거리 제공, 돌봄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노-노케어 사업 확대, 한·공·그라운드골프 등 건강 증진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100여 개 자원봉사 클럽활동 지원 등 많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어르신들의 기대에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 회원 58%가 76세 이상 고령자이며, 70% 정도는 매일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며 소일하고 있고, 경제적 혹은 건강상이유 등으로 노인건강타운이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로당은 노인회의 근간이요 어르신들

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다. 이러한 경로당이 사랑방 수준을 넘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은 물론, 간단한 일거리 제공, 건강 관리, 교육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로당은 노인건강타운이나 복지관처럼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다.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봉사자 개개인의 무한한 희생이 요구되며 인원 또한 많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자원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부모님들의 일상 공간, 가까운 미래의 나의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는 노인회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급속한 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 어르신 복지 관련 모든 기관·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

내년이면 시 노인회는 40여 년의 남구 서동 시대를 마감하고 상무 신도심 내에 신축되는 노인회관으로 이전하며 기능 이강화된다. 건강 증진, 취미 여가, 교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다. 그동안 노인회관 건립에 몰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사를 드리며, 민선 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인 빗고을 노인건강타운과 같은 서부권역 '어르신 복합시설 건립'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변해야 한다. 아집과 독성을 버리자. 국가가, 지역사회가, 이웃이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습관은 '뒤통 늙은이'가 아닌 지역 사회 어른으로서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 같은 중요한 지역 현안에도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긴 여정에서 체철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숭선수범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 고

광주 랜드마크와 현대미술관



남 진 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1m 크기의 나선형 전시관을 가진 유리 돔을 설치한다. 관람객들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서 관람하며 31m 근처에 3·1절에서 광복 및 분단 관련 작품 공간을, 41.9m 근처에 4·19에서 유신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 작품 공간을, 51.8m 부근에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그림, 사진, 조각 등을 전시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회의는 의회 건물 옥상에 40m 높이의 유리 돔을 설치해 베를린시와 독일 의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작품을 전시하는 데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이다. 유리 돔을 통해 들어온 자연광은 건물 내부에 있는 360개의 거울에 반사되어 의사당의 난방과 조명 에너지로 사용하여 친환경, 투명성, 국민을 위에 모신다는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이를 참고했으면 한다.

랜드마크는 독창성, 상징성, 접근성, 이용성 등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에머슨의 말처럼 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립 단계부터 반대가 극심하였다.

에펠탑은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

스러운 철골 구조물로 비난을 받아 1909년 철거 예정이었으나 통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덴마크 출신 건축가 '요른 우손'이 혁신적 디자인과 1959년 350만 파운드의 초기 예상 비용의 30배 넘는 1억 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공사 비용, 4년간 예상된 공사는 14년간인 1973년에 완공하는 등 공기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요른 우손'은 오페라하우스가 건축물이 아닌 예술품이라는 원칙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 공사중인 1966년 해임되었으며, 해임 이후 호주 정부 의 개관식 초청 등 화해 움직임에도 죽을 때까지 시드니에 가지 않았다. 건축가와 몰상식한 호주정부 관리와의 서사시와도 같은 싸움은 '우손, 오페라하우스 배후의 인물'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LA 산타모니카에 자신의 집을 지었을 때 이웃들이 시당국에 괴상한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정도로 반항적이고 과격적인 건축 상황으로 유명하다. 당시 미국 건축계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아 일감이 없었던

그를 과격적으로 기용한 것은 철강 산업의 침체로 슬럼화된 빌바오시였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건립된 후 늘어난 관광객수가 약 100만 명이다. 한 건축가의 뛰어난 발상이 도시를 되살리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광주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5·18의 정신과 이상을 구현하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건축 디자인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일단 건축가에 의뢰한 후에는 지원은 하되 입지나 설계 등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관장 임기에 완공 등 빨리빨리 문화를 불식하여야 하며, 완벽한 공사를 위해 예산 등의 문제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공정의 난이도가 건축 공학의 극한까지 시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안보다 쉽고 빠르고 싼 방법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원칙과 타협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

광주를 상징하는 5·18 현대미술관 건립이 46억 아시아인이 찾는 문화 관광 매력 도시로서의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社 說

광주형 일자리 성공 노·사·민·정 머리 맞대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지역 노동계가 협상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현대차도 투자 의향 철회를 시사하고 나섰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3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빛그린산단 내 완성차 공장 유치를 결의함으로써 탄력을 받은 듯 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자기자본 2800억 원 가운데 19%(534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도 21%(590억 원)를 투자해 시와 현대차가 함께 운영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 밀착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지난달 19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에서 적정 임금과 노사 책

임 경영 등에 대한 진척이 없고 협상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현대차도 "노사민정의 합의가 안 되면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러섰다.

가장 큰 쟁점은 근로자의 초임 연봉에 대한 이견이다. 노동계는 애초 4000만 원으로 예상했던 5년간 초임 연봉이 2100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나쁜 일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주 44시간 기준 평균 초임 연봉 3500만 원 수준에서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그동안 시와 노동계의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노·사·민·정이 적정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해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노동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계 또한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적 올리기보다는 사고 예방 위한 단속을

광주 도심에서 단속률이 높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대부분이 계도보다는 단속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과속 카메라를 도로표지판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 놓는다면,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내리막길에 카메라를 설치한 탓에 일부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과속으로 단속된 건수는 11만9937건에 이른다. 속도 위반 최소 과태료인 4만 원(시속 20km 미만)씩만 잡아도 47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해당 기간 동안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을 몇 군데 둘러보았다. 그중 광산구 운수 IC교차로의 경우 시속 80km 제한 속도인 2차로의 어등산 터널을 지나자 편도 4차로로 확장

되면서 내리막길인 도로에서 갑자기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줄어들었다. 속도가 줄어드는 곳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일부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하면서 추돌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스콜존(제한속도 30km)인 북구 우산동 무등초등학교 앞 도로(전남대 방면) 역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진입했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과속 방지턱 등이 없는 탓에 제한속도를 넘기는 운전자가 많았다. 카메라 단속을 인지한 뒤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이미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방지턱이 없거나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과 단속중임을 알리는 팻말이 없을 경우 사고 위험까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주요 단속 구간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을 다수 설치하고 실적에 매달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값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다만 시장이 정책 효과를 관망하면서 거래가 실종됐다는 뉴스만 전해질 뿐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보다가 서강대 사학과 계승범 교수가 제시한 부동산 해법에 눈길이 갔다. 그가 제시한 부동산 해법의 핵심은 1기구 2주택까지만 법적 소유를 인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는 불법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그런벨트도 안 되고, 대학 등록금도 국가에서 위력으로 지급처럼 동결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공공의 이익이나 안생을 위해서는 국가가 얼마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거 잘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투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는 '통쾌한 해법'이라는 지지 글이 많이 올랐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봐야 어떤 아파트의 단 하루 가격 상승분만큼도 벌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한 시장 경제를 왜곡

부동산 해법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근로 욕구를 없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현재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대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북 관계나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할 일이 많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위기의 경제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남아 있는 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고 확실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지석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황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법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